

‘영원한 현역’ 김보현 화백 추모전 27일~3월12일 조선대미술관



관(미술대학 3층)과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본관 1층)에서 김보현 화백 추모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그 순수함을 기리며’를 연다.

191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김 화백은 일본 도쿄 메이지법대와 태평양미술학교에서 수학했고, 해방 이후 귀국해 1946년 조선대 예술학과를 창립해 1955년까지 전임교수 및 예술학과장을 역임했다.

당시 제자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로작가 김영태 화백이 있고, 천경자 화백과도 강의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

조선대는 국내에서 김 화백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김 화백은 지난 2000년 조선대에 306점의 작품을 기증한 데 이어 지난 2002년 그의 부인 실비아 올드(1915~2011년) 화백의 작품 78점을 추가로 기증해 모두 399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조선대 본관 1층에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을 개관했고, 이후 기획 및 상설전시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진원장 조선대미술관장(미술대학 교수)은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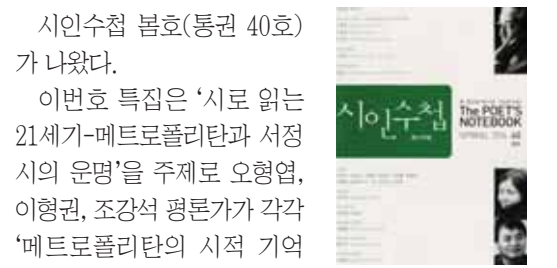
의 순수함처럼 마지막까지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김 화백의 예술혼과 작품들은 젊은 작가들과 후학들에게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작가의 욕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김 화백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시 개막식은 오는 27일 오후 3시다. 문의 062-230-78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시인수첩 봄호’

특집 ‘시로 읽는 21세기’ 등 수록



시인수첩 봄호(통권 40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은 ‘시로 읽는 21세기-메트로폴리탄과 서정시의 운명’을 주제로 오형엽, 이형권, 조강석 평론가가 각각 ‘메트로폴리탄의 시적 기억술’, ‘평론가 구보씨의 하루’, ‘대도시와 정신적 삶, 그리고 서정시’를 분석한다.

‘이 계절에 만난 시인’에서는 올해 영랑문학상에 선정된 김종철 시인과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느냐’의 허수경 시인을 조명한다. 김종철 시인은 일본과 위안부라는 예민한 문제를 시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이고 허수경 시인은 ‘너 없이 희망과 함께’ 등의 작품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해방 후 한국현대시 문학사를 분석한 평론도 눈에 띈다. 김재홍 평론가의 ‘전후부단 형성기의시와 시인’은 전통서정시의 변화 양상과 전후 휴먼 서정시의 경향 등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신작시 코너에서는 광주 출신 광재구 시인의 작품을 비롯해 열 명 시인의 새로운 시들을 만날 수 있고, ‘시와 일러스트’에서는 김수진 씨가 광주 출신 이상부(1942~1912) 시인의 ‘귀가 밝아진다’를 소재로 그린 만화를 만날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그 순수함을 기리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못 그리는 게 문제지요.’

지난 7일(미국 시각) 97세의 일기를 끝으로 눈을 감은 재미화가 고(故) 김보현(미국명 Po Kim·사진) 화백은 백수(白壽)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그는 올해 9월 워싱턴DC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고, 100세 기념전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다.

‘영원한 현역’ 김보현 화백을 추모하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조선대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조선대미술

이번 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수한 작가로 남길 희망했던 김 화백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기리는 자리다.

1960년대 한국화단에 영포르멜(추상미술의 한 경향) 운동이 출현했을 당시의 추상화부터 1970년대 이후 구상으로 눈을 돌린 고인이 새, 물고기 등 자연의 생명체와 인간의 조화를 독특한 색감과 필치로 표현한 작품 7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뒤에 남긴 120호 크기 4개 작품이 이어진 ‘또 다른 생명’(2013년)은 그의 마지막 작품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6명의 남녀, 그들 각자의 사연은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3월2일까지 동산아트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6명의 남녀가 한 카페에 모였다. 밝고 경쾌한 수다남, 사연 많은 탈옥수, 도도한 매력의 여자, 무대공포증에 걸린 신인가수, 늘 사랑을 나눠주는 귀여운 여인 등 얼핏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의 사연이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힐링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사진)가 오는 3월 2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콘서트 뮤지컬’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진행되는 ‘우연히 행복해지다’는 2007년 초연 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소극장 뮤지컬로는 드물게 미국, 호주, 브라질에서도 공연됐다.

어렸을 때 헤어진 누나를 찾으려 세계일주를 하는 만해와 카페에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소연의 사연은 무엇일까. 태어날 때부터 관심이라고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철수와 항상 잘나가기만 했다는 봉자에게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극의 마지막, 배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노래를 부르는 10분간의 콘서트 장면이다. 티켓 가격 3만원.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4·25일 ‘예술인 복지사업 설명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지역 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정보를 소개하고 질의와 방법을 안내하는 ‘예술인 복지사업 설명회’를 마련한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24일 오후 2시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광주문화재단은 25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현장 예술인 교육지원, 학습공동체 지원, 교육 이용권, 신문고 운영 등 9개 분야 복지사업과 지난해 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진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설명회 후에는 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시간도 갖는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35.8% 늘어난 200억원이 투입된다. 문의 062-670-7433, 061-280-584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성공회 ‘청노루글쓰기교실’

3월3일~6월16일 매주 월요일

광주성공회센터가 지역 여성을 위한 ‘청노루글쓰기교실’을 운영한다.

3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오후 7시~9시) 남구 월산동 광주성공회센터(화성 회관 건물 3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글쓰기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극작가 겸 문학박사인 김영학 씨가 강사로 나서 문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상을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쓰기 치료 등을 강의한다.

강의를 희망하는 수강생은 3월 3일까지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 공지사항에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40명. 문의 010-5642-926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20년사’

개관부터 2012년까지 주요활동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이 지난 1992년 미술관 개관 이후부터 지난 2012년까지 20년 간 미술관 주요활동을 담은 ‘광주시립미술관 20년사’를 발간했다.

‘미술관 20년사’는 총 7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미술관 연혁, 기구 및 인력, 시설·관람객·예산 현황이 실려 있고, 제2장에는 미술관 소장품 수집현황과 순수소장품 목록, 제3장에는 하정웅컬렉션과 기증작품목록, 제4장은 미술관 전시가 연도별로 정리돼 있다. 제5장에서는 미술관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현황, 미술관 음악회 개최 현황을, 제6장에서는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외부 미술전문인의 ‘광주시립미술관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김영호 중앙대 교수의 ‘개관 20주년이 갖는 의미와 발전방안’과 김복기 아트인컬렉터 발행인의 ‘하정웅컬렉션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관한 글이 실렸다.

또 부록에는 ‘미술관개관 20주년 기념 수요자중심 미술관을 위한 설문결과’를 실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 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광주 시내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부담없는 **호텔 VIP회원권**이 필요한가요?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VIP 연회원권 신설!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아울렛 (개인가족별)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펌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웰빙 샐러드 뷔페(10층스카이뷰)

부담없는가격·풍부한샐러드바

웰빙의아재와최고기 샐러드

주중 12,000원 / 주말 15,000원 / 어린이 7,000(부가세포함)

호텔무등파크

문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